

# 전남·북 등 전국 댐 수해지역 주민들 뭉쳤다

### 구례서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수해 피해배상 범대위' 출범식 환경부 셀프조사 반발... "총리실 산하 조사위 원인조사 주관해야"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남·북과 충남·북, 경남지역 피해 주민들이 뭉쳤다. 22일 구례군에 따르면 댐 수해 지역별 주민 대표들은 이날 구례에서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수해 피해배상 범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8일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구례읍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고 가족이 폐사했다. 용담댐과 합천댐 하류에서도 농경지 침수와 가족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 피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 피해 보상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유발자'에 해당하는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공

정성·신뢰성 차원에서 모순이라고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사위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 활동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구성할 댐별 지역협의체에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주말 댐 과다 방류 피해가 발생한 섬진강 유역을 둘러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목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환경부 '셀프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가 될 것"이라며 "총리 면담이 성사되면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댐 수해 지역별 주민 대표들이 22일 구례군 구례읍 다목적체육관에서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수해 피해배상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제공>

# 군산 조선산업 중소·특수선 위주 새판 짬다

### 관공선·함정 등에 친환경·신기술 적용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

군산 조선산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특수선 위주로 새판을 짬다. 군산항 일원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구축해 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제조와 수리 산업 위주로 재편한다. 22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군산시, LIG넥스원, 호원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전날인 2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선박의 미래기술 분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정보 등을 공유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총수명주기 체계관리, 기자재 신뢰성 및 품질 고도화, 국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고도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상호간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도 약속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군산항에 조성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에서는 관공선, 연안 선박, 함정에 친환경·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의 제조·개조·수리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 조선·해양산업의 돌파구를 찾고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3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군산조선 새가동과 함께 선진화 단지가 구축되면 조선산업에서 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전북 조선산업의 제도약을 이끌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에 조선 관련 업체와 방위사업체 등의 기업 공간을 조성해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전북도와 군산시, LIG넥스원, 호원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제공>

이 긴밀히 협력해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선박 선진화 분야에서 산업 기반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저소득층 자활사업단 남원시 '월면가' 개점

남원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단 '월면가'를 개점했다고 22일 밝혔다. '월면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약을 맺은 MIB코리아의 외식분야 가맹점이며, 가성비 높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 최근 빠르게 확산중인 프랜차이즈점이다. 올해 3월부터 준비하여 오픈한 '월면가'는 양질의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7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설립요건 충족 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게 된다. 남원시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지원하는 자활사업에는 사회적기업, 카페, 농촌환경개선, 돌봄 등 7개 사업단에 총 62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에 따라 자활장려금 또는 자립성 과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활사업단의 다변화를 꾀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단의 개점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익산, 푸른 도시 만들자" 시민들에 나무 3그루씩 무료 분양

익산시는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나무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3그루씩 분양한다. 익산시가 준비한 나무 물량은 감나무와 매실나무 등 6종류, 7000그루다. 나무분양은 다음달 16일 공동체 나무 나누어주기과 같은달 30일 시민참여 나무 나누어주기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시민참여 나무심기 사진을 늘푸른공원과 인스타그램(iksancitypark)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는 도시의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생활 주변에 더 많은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익산시는 학교를 비롯한 190개 공공기관에는 가을꽃 9만본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지난 2018년 제1회 농촌영화제 개막식에서 방송인 김미희씨가 그린카펫을 걸으며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국내 유일 '농촌영화제' 내달 30일 고창서 개막

고창농산물유통센터서 온라인 비대면 진행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농촌 문화자산을 스크린을 통해 보존·유지하기 위해 '고창농촌영화제'를 개최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어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사흘간 고창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제3회 농촌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고창농촌영화제는 지난 2018년부터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에서 열렸지만, 주민 접근성과 외부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창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으로 장

소를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실내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상영회 등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기영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고창농촌영화제가 고창의 특색있는 농촌영화제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모인 조직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영운 고창군 농어촌식품과장은 "비대면 산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모습의 영화제로 거듭나도록 조직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